



L'ORÉAL과 GILLETTE 사이의 털

THE SYSTEM · 11

털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척하는 하나의 디테일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위생, 미학, 정체성, 문화, 의식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그것은 하나의 경계일 뿐이다 — 보여 주는 것과 감추는 것 사이의.

누군가는 이발사에게, 누군가는 피부 관리사에게, 누군가는 자울과 완벽을 약속하는 최신 기계에게 그것을 맡긴다. 그러나 털은 고집스럽게 그 자리에 남아 있다, 하나의 생물학적 일깨움으로: 당신은 사회적 존재이기 전에 동물이다.

그렇다고 털이 적은 아니다. 불편한 친구,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일깨워 주는 길동무다. 털은 거의 온몸에 모세혈관처럼 퍼져 있고, 유전자 지도가 정해 준 색을 지니며, 지울 수 없는 이야기를 품고 있다. 탈모를 겪는 사람들조차 털이 없는 것이 아니다 — 누구도 정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잃었을 뿐이다.

그러나 털을 이해하려면 기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 언제나 돌아가게 되는 그곳, 원시 인간으로.

나는 그것을 이렇게 상상한다, 선사 시대의 누아르 장면으로. 풀숲 벽 뒤에서 두 형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세 번째 사람이 다가오지만 누가 남자이고 누가 여자인지 분간하지 못한다. 얼굴만으로는 부족하다. 얼굴은 속인다.

그래서 여자는 자기 정체성의 운명을 바꾸기로 한다.

그녀는 강으로 가서 물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고, 수염을 본다.

그녀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것은 그녀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녀를 구별해 주지 않는다.

그녀는 날카로운 돌을 찾아 털을 한 올씩 없애기 시작한다.

그녀는 털이 느리게 다시 자란다는 것을 알게 된다 —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게 유리하다: 그 의식을 매일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녀는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를 발견한다: 남자가 그녀를 다르게 바라본다는 것을.

차이는 끌림이 된다.

차이는 언어가 된다.

거기에서 털의 문화 전체가 태어난다: 처음에는 상징적으로, 다음에는 사회적으로, 다음에는 위생적으로, 다음에는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념적으로.

그리고 오늘날의 극단주의에 이르기까지: 털이 세균으로부터 지켜주니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사람들, 받아들여지려면 없애야 한다는 사람들, 욕망의 대상이 되려면 다듬어야 한다는 사람들.

진실은 더 단순하다: 털은 태어나고, 자라고, 휘어진다... 그리고 휘어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죽는다.

그러나 모근은 살아 있다, 고집스럽게, 의지로도 지울 수 없는 어떤 생각들처럼.

그리고 마지막 규칙이 있다, 이야기꾼들만 아는 규칙이:

모근을 결코 모반으로 만들지 마라.

차이는 아주 작다 — 글자 하나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Ferdinando